

# 마을 홍보 콘텐츠 발굴 공모전 추진

전주문화재단, '뽐내봐! 전주 마을 이야기' 9월 27일까지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전주시 35개 동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뽐내봐! 전주 마을 이야기'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전주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전주시 35개 동의 마을과 관련한 이야기 역사·문화·인물·명소 등을 활용해 만든 전주의 다양한 문화·관광·이야기자원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 분야는 영상 콘텐츠 사진 콘텐츠, N행시 등 총 3개 부문이며, 응모 수는 제한없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 될 예정이다.

한편 공모전 시상식은 10월 15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리는 '2022 전주 마을동심박람회' 기간 진행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전주 곳곳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을이야기 콘텐츠가 발굴돼 전국으로 알려질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모 관련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www.j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예진흥팀(070-7711-375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기자



'뽐내봐! 전주 마을 이야기' 공모전 포스터.

# 태권도원, 무주반딧불축제 성공 기원 함께한다

9월 3일까지 50% 입장료 할인 · 9월 4일 태권도의 날 무료 입장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4일까지 무주에서 개최되는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 기원을 위해 축제 방문객을 위한 태권도원 입장료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태권도원 상설공연 모습

무주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자리잡은 반딧불 축제는 다양한 무주의 역사 문화와 더불어 청정 생태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으로 태권도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문화에 재단이 적극 동참, 축제의 흥을 이어갈 예정이다.

태권도원은 9월 3일까지 입장료 50% 할인에 이어 9월 4일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법정 기념일로 '태권도문화페스티벌' 전국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태권도의 날 기념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 만큼 전 고객 입장료는 무료로 운영된다.

태권도원은 9월 4일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태권도 상설 공연·관람과 체험을 무료

로 즐길 수 있으며 AR·VR을 활용한 가상 태권도를 즐길 수 있는 '체험관 YAP', 태권도 동작을 응용한 아티스트 퍼포먼스 '플레이원', '모노레일 이용과 전담대 관람', '국립태권도 박물관 등 다채로운 체험과 놀이시설이 운영되어 축제방문객의 또 다른 만족을 더해줄 예정이다.

재단 이용재 영업본부장은 "대한민국명예문화관광축제인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태권도원의 입장료 할인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운영한다"며 "무주의 대표 축제인 반딧불축제와 더불어 태권도원 방문을 통해 새로운 태권도의 매력을 더 많이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원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태권도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성기자

# '전북 쇼핑관광 홍보 서포터즈'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재외국민, MZ세대 등을 통한 전북민의 차별화된 쇼핑관광 콘텐츠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할 전북 쇼핑관광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2 전북 쇼핑관광 활성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5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전북 쇼핑관광 홍보 서포터즈는 도내 거주 내·외국인 대학생에 대상으로 쇼핑관광 프로젝트 홍보 활동을 추진해 지역쇼핑 이미지를 구축시키고자 기획했다.

모집 공고는 9월 14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내국인 10명, 외국인 30명을 모집한다. 관광산업에 관심있는 도내 거주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단에서는 서포터즈 유경험자(공통 우대조건), 영어 등 외국어 가능자(한국인 우대), 한국어 가능자(외국인 우대), 관광산업 및 쇼핑에 관심과 열정이 뛰어난 자, 활동기간 동안 모든 행사에 참여 가능한 자 등을 우대한다.

/장은성기자



#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박재영 개인전

8월 31일~9월 5일 진행

전북도립미술관은 8월 31일부터 9월 5일 까지 서울관에서 '박재영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5번째 개인전이다. 박 작가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산업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제36회 모란현대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전업 작가로 활동 중이다.

작가에 따르면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적 일상 작가의 작품은 나날이 가속화되는 생산, 소비의 주기에 의해 촘촘하게 짜인 삶의 그물망을 느끼게 한다. 물질을 연결하는 조임새들이 풀어지면서 발산된 에너지는 빛이 되어 화면을 밝게 물들인다. 작가는 이전에 도시를 건설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이제 건축은 심리적 대상이 되었다. 건물이나 도시계획을 짜는 인간의 머릿속에는 이상적인 삶에 대한 (마음의) '그림'이 있다.

작품은 꿈처럼 자유롭지만 꿈이 그렇듯이 현실의 조각들은 남아있다. 가령 '건축 설계도를 그리듯 재단된 면들로 시작한 이미지'가 그렇다. 아무리 자유를 추구하든 전적인 무(無)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 수직과 수평이 교차되는 기하적 이미지들은 화면

의 기본 좌표를 설정해 준다. 하지만 그것은 최초의 방향처럼 뿐, 작가는 언제나 더 멀리 나아간다. 종려에서 벗어난 현실적 요소들은 조형적 기능 외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점과 선 얼룩이 되어 유평한다.

노랑과 상보적인 푸른색 계열은 낮의 활력을 위한 밤의 깊이가 된다. 이번 전시에 눈에 띄는 노랑 계열 색조의 작품들은 햇살 가득한 도시의 분위기를 살림과 동시에, 도시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 빛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전시부제 'The Light in the Park'처럼 작가의 작품은 대체로 밝다. 푸른 색조와 무채 색조는 밝음을 더욱 밝게 어둠을 더욱 어둡게 하는 대조군을 이룬다. 빛이 아니더라도 건축 자체가 긍정적 예술이다. 도시는 익명의 다수가 좀 더 나은 곳으로의 이동을 꿈꾸며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삶의 방식이 코드화되고 고정될수록 희망도 더욱 커진다.

작품은 자유로움과 구조적 감각이 환상과 현실이 지각과 기억이 공존한다. 작가는 "도시와 도시 건축물에는 삶과 죽음, 고독, 경쟁뿐 아니라 희망과 행복에 대한 기억이 공존한다"며, 자신의 작업이 '무의식에 잠재한 도시에 대한 경험과 기억, 사유에 켜켜이 중첩되며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년한지관, 9월 7일 전주한지 창작연극 공연

전주천년한지관이 다음달 7일 오후 7시30분 전담 공연장에서 전주한지를 주제로 한 창작연극 '한지꽃이 피었습니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통한지의 보전과 계승, 전통한지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운영 중인 전주천년한지관은 전통한지와 문화·예술을 연계해 새로운 한지문화 조성을 위한 전주한지 예술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연극 공연을 진행한다.

이에 따르면 한지관은 과거 한지골이라 불리던 흑석골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극작가 최기우씨에 의해 '한지꽃이 피었습니다'를 제작

했다. 한지꽃이 피었습니다는 흑석골을 배경으로 전주한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소품과 그에 얽힌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았다.

특히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소품 한지 뜨는 모습을 형상화한 노래와 인무를 통해 관객이 한지 뜨는 과정과 쓰임새를 알기 쉽게 준비했다.

한편 이번 연극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천년한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 군산시민예술촌 초청강연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 빠지다'

군산시민예술촌(총장 박양기)이 오는 9월 2일 저녁 7시 30분 최석영 강사(주식회사 감성놀이터 대표)를 초청해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군산시 중정길 17)에서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최석영 강사는 메타버스, 메타버스휴먼 전문가로 주식회사 감성놀이터 대표 및 서울시 버대대학교 겸임교수로 VR콘텐츠디자인 강의 등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이날 강의를 통해 메타버스의 이해와 활용, 메타버스 플랫폼 소개, 메타버스의 활용, 메타버스의 미래 등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와 체험을 통해 메타버스의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 강연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군산시민예술촌(063-443-7725)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관근기자

# 제7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2년 9월 2일(금) 오후 6시~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